



보도시점 2025. 11. 2.(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5. 10. 31.(금)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양' 선정

- 한반도 산악지대를 지키는 살아있는 화석 산양, 과거 밀렵과 서식지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보호
- 최근 보호 관리와 복원 노력으로 강원도 고성군에서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서식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초식동물인 산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양은 이름에 양이 들어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소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로 몸길이는 105~130cm, 체중은 25~35kg 정도로 털은 대부분 회갈색을 띠며, 이마와 뺨, 가슴, 꼬리 안쪽의 흰색 털이 특징이다.

발굽은 튼튼하고 깊게 갈라져 등산화처럼 암벽에 단단히 밀착되어 가파른 바위 지형도 민첩하게 오를 수 있다. 암수 모두 원통형 모양의 뿔이 있으며 뿔의 두께와 벌어진 모양으로 개별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산양은 주로 높은 산악 산림 지대에 서식하는데 성체 수컷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어미와 새끼는 2~3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겨울이 되면 계곡 아래로 이동해 더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낸다.

과거 190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산양은 산업화 등으로 점차 서식지가 감소 추세에 놓이게 되고 특히 1964년 동절기에 폭설과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군이 급감하였다.

그 결과 1968년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99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양의 생태 복원을 위해 2007년부터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산양을 복원하여 100여 마리 이상의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였다.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월악산에 22마리 방사 후 2024년까지 최소 183마리 서식 확인

다행히 산양의 서식 범위는 월악산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부터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제한된 지역에 머물던 산양이 더 넓은 산림 생태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생태 신호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폭설이 잦아져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무리가 눈 속에 고립되어 폐사하는 일도 발생함에 따라 꾸준한 보호 활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산양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산양 생태정보.
2.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양 포스터.
3. 산양 사진.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장	김경석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강인숙 (044-201-7242)



불임 1

산양 생태정보

국 명	산양	
학 명	<i>Naemorhedus caudatus</i>	
분 류	포유동물강/우제목/소과	
지 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형태		<사진제공: 국립생태원>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길이 105~130cm, 뿔 길이 13~14cm, 꼬리 길이 11~16cm, 체중은 25~35kg이며 소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임• 대부분의 털은 회갈색 혹은 담흑갈색이며 겨울털은 부드러우면서 빽빽하게 나 있음• 튼튼하고 두 개로 길게 갈라진 튼튼한 발굽으로 바위틈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음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 지대에 서식하며 특별히 가파른 바위가 있는 험한 지형을 선호함• 수컷은 단독으로, 어미와 새끼는 2~3마리의 작은 무리로 생활하다가 겨울철에는 계곡 아래로 이동해 더 큰 무리를 이룸• 초식성으로 어린잎과 초목, 과실 등을 먹이로 함
위협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개발과 서식처 파괴로 인한 서식처 단절• 밀렵,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등에 의한 개체수 감소

2025년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한반도 산악지대를 지키는 살아있는 화석, “산양”

산양은 한반도 산림 생태계를 대표하는 초식동물로 오랜 세월 외형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몸길이는 105~130cm, 꼬리 길이는 11~16cm, 체중은 약 25~35kg이고 암수 모두 13~14cm의 원통형 뿔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회갈색이나 담흑갈색을 띠고 이마와 뺨, 가슴, 꼬리 안쪽의 흰 털이 산양을 특징짓는 외형적 요소다.

성체 수컷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어미와 새끼는 2~3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겨울이 되면 계곡 아래로 이동해 더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내며, 짹짓기는 10~12월에, 출산은 5~7월에 이루어진다. 임신 기간은 약 200일이며 1~2년에 한 번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산양은 과거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으로 보호받고 있다. 최근에는 보호 관리와 복원 노력으로 강원도 고성군에서 경상북도 경주시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산
양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포유류

산양 *Naemorhedus caudatus*

그림 | 2025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참가작 김창균 作

2025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 참가작 최경수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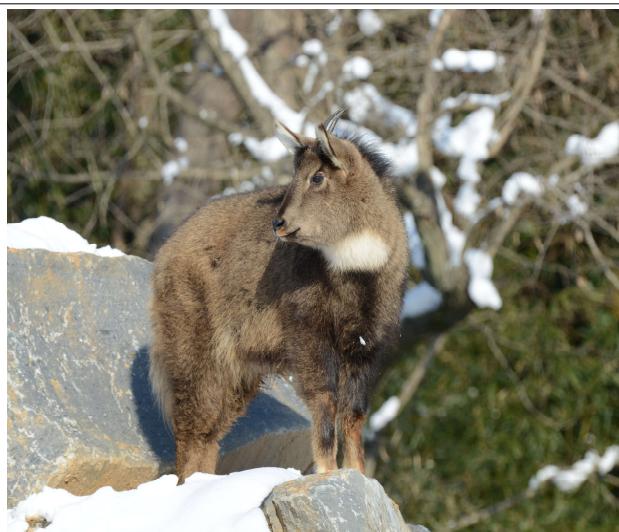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붙임 3

산양 사진



<사진제공: 국립생태원>